

욥기

모임 29: 욥기의 메시지

존 월튼

이것은 Dr. John Walton과 욥기에 대한 그의 가르침입니다. 이것은 세션 29, 욥기의 메시지입니다.

이유 질문에 대한 답변 없음 [00:21-2:35]

그래서 마침내 우리는 욥기의 메시지를 요약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답변을 제공합니까? 귀하의 질문이 무엇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귀하의 질문이 "왜?" 라면 아마 아닐 것입니다. 욥은 자신이 고난을 당하는 이유를 한 번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고통에 대한 욥의 행동에는 이유나 원인이 없습니다. 우리가 과거를 볼 때 우리는 이유를 찾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목적을 추구하면서 예수님의 조언에 따라 미래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과거에 대한 이유를 묻는 전자의 시도는 버려야 한다. 그리고 목적을 추구하는 후자도 느슨하게 유지되어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목적을 추구할 때에도 항상 그것을 발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유가 존재한다고 생각할 근거가 없습니다.

우리 현대인의 성향은 글썄요, 제가 그 이유를 알 수는 없지만 천국에서 알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저러한 고통을 겪은 이유를 찾기 위해

이성 부스에 줄을 선 사람들을 상상한다. 그것에 의지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유를 모른다는 것만이 아니라, 이유를 알 수 없다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유가 없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험 중 일부는 비질서와 무질서가 포함된 세상에 살고 있는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경험은 이유의 결과가 아닙니다. 그것들은 세상이 있는 그대로의 결과입니다. 그건 이유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변호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잘못됨[2:35-2:55]

반대로 우리는 고통의 목적을 찾을 수 있지만 그것을 찾을 것이라는 보장은 없으며 목적 자체는 복잡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문이 왜 욕기에서 답을 기대해서는 안 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당신의 질문이 있다면,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당신은 하나님이 세상에서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 대답해야 할 것이 많다는 생각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글썄요, 우리도 그 대답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변호해 주실 것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법정으로 불러 자신을 변호하게 만든 것은 욕의 실수입니다. 아니오, 아니오, 우리는 신이 자신을 방어할 것이라고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한 설명은 확실히 우리의 급여 등급보다 훨씬 높고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섭니다.

사심 없는 의[2:55-4:49]

우리의 질문이 다음과 같다면 어떨까요? 사심 없는 의로움이 있습니까?

물론 그것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묻는 질문은 아니지만 Challenger가 제기한 질문이며 책의 많은 부분에서 주제가 되는 질문입니다. 그것은 책이 제기하는 질문이기 때문에 물어보아야 할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거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당신은? 우리는 그렇게 하도록 격려를 받고 있으며, 기꺼이 대가 없이 하느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혜택, 영생, 용서, 구원, 혜택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들을 얻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그럴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받는 혜택이 없더라도 기꺼이 하나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이유가 전혀 없을 수도 있습니다[4:49-5:27].

어떤 일이 왜 일어났는지에 대한 설명을 얻지 못한다는 사실을 넘어, 이 책은 우리가 설명이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중요한 통찰에 도달하도록 도와줍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유가 없습니다. 즉, 단순히 답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 우리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또는 보류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히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 이유가 없을 수도 있고, 우리는 기꺼이 그와 함께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능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5:27-6:22]

우리가 배우는 또 다른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어진 세상의 지배 아래서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다는 환상을 스스로에게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40장에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그것을 수사적으로 제시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계속해서 시도해 보세요. 어때요? 우리는 그것을 더 잘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글쎄요, 신은 아주 좋은 일을 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것을 더 잘할 수 없었지만, 그는 아주 잘하고 있지 않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아니, 아니, 하지만 우리는 신을 능가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신. 그러한 잘못된 생각은 우리를 정확히 욥의 입장에 놓이게 합니다. 즉, 하나님에 대해 너무 단순하고 기계적으로 생각하고 자신을 너무 높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핵심 메시지는 고난 중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6:22-8:05].

이 책이 전하는 메시지의 핵심은 신뢰만이 가능한 유일한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험은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유는 덧없고 부적절합니다. 상황이 나쁠수록 신뢰하기가 더 어려우며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신뢰입니다. 우리가 모든 답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믿을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이성이 실패한 곳에 신뢰가 온다.

하나님의 지혜가 우세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입증되어야 하지만 우리의 경험에서 분명해지리라고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혜택은 우리의 마음에서 평가 절하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혜택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파트너십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는 우주를 위한 그의 계획과 목적의 위대한 사업에서 우리를 파트너로 삼았습니다. 우리는 그가 하고 있는 일에 그와 동역하는 참가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얻는 것은 가치가 있지만 우리의 약속과 행동을 주도하는 요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브라함과 혜택 없이 하나님을 섬기다 [8:05-10:37]

욥기의 메시지: 거저 하나님을 섬기느냐? 아니면 당신이 얻는 것에 대해서만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다시 한 번, 아브라함은 매우 유사한 일을 하도록 요청받았습니다. 그 제단에 묶인 것은 그의 아들만이 아니었습니다. 언약이고 언약의 모든 약속이었습니다. 이삭이 없으면 언약이 없기 때문입니다. 가족이 죽고, 땅도 없고, 가족도 없고, 축복도 없습니다. 언약은 그때까지 그 제단 위에 있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포기하라고 하신 모든 것을 그에게 더 좋은 것으로 돌려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이 필요했지만 그는 항상 믿음으로 응답함으로써 언약을 통해 유익을 얻었습니다.

22장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얻을 것이 없으며 그 혹을 쉽게 넘을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사실, 그는 자신이 얻을 수 있었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22장 12절에서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내가 이제야 아노라” 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단어의 대안은 그랬을 것입니다. “이제 나는 당신이

자신을 위해 있고, 이익을 위해 있고, 무언가를 얻을 때만 믿음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것은 다른 대안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모든 언약은 그가 그것을 포기할 준비가 되었을 때 그의 사랑하는 아들과 함께 그 제단 위에 앉았습니다. 하나님은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내가 이제야 아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사심 없는 의로움입니다. 나머지 모든 것을 기꺼이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욕기의 질문입니다. 우리 중에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중요한 질문이며 마지막 부분으로 이어집니다. 욕기의 적용.

이것은 Dr. John Walton과 욕기에 대한 그의 가르침입니다. 29회 욕기 메시지입니다. [10:37]